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	다	같	이
기	원	.....	인	도	자
찬	송	82장	.....	다	같
교	독	문	.....	다	같
신	앙	고	백	.....	다
찬	송	.....	다	같	이
기	도	.....	이	창	걸
성	경	봉	독	.....	다
특	송	.....	.....	.....	.....
설	교	.....	이	영	제
		예수님은 누구 신가?	.....	이	영
		(7. 나의 흠(笏)과 신로이신 예수님)	.....	.....	.....
찬	송	361장	.....	다	같
헌	금	.....	.....	다	같
봉	헌	기	도	.....	인
광	고	.....	.....	인	도
찬	송	.....	다	같	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	.....	.....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	.....	.....
축	도	.....	.....	인	도



세계선교정보연구원 13기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자**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호선) 유동(이창걸)



**주안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 주요교회 24시간 릴레이 기도제목

### ○ 주양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영국총신(유학목사님들) 특강이 잘 이루어지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8월 4일-15일)

###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의 단비편지가 잘 준비되며,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파키스탄 단기선교 여행팀이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8월 2-30)  
(형제:정신호, 황반석, 자매:이우진, 조현정, 김미나)

###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 ○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

민족 회개와 종교혼합주의, 미신, 무속 타파를 위해서  
영적분별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한국경제회복을 위해서와 실업자, 근로자 문제를 위해서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윤리 회복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식량난과 핵포기를 위해서

### ○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도록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출과 탈선이 사라지도록  
낙태가 사라지고 미혼모가 줄어들도록  
음란의 영들이 사라지며, 윤락여성들이 갱생하도록



## 주일오후 2시 예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설교

이영제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6:1-8 신앙 성숙의 필요성

6:9-12 믿음을 굳게 지키라

9절 저자는 가장 중엄한 심판의 경고를 한 뒤, 그러나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ἀγαπητοί(아가페토이)라고 가장 애정 어린 표현을 사용함으로 본서의 수신자들이 배도 자들이 아니라는 것과 그들에게 절망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τὰ κρείσσονα(타 크레이토나) “ 그것보다 더 좋을 것들” 이라는 복수의 사용은 가시와 영경귀를 내는 것과 반대되는 영적 열매 맺는 생활을 시사해 주며 저주와 지옥과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시사해 준다.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 하시느니라 과거의 행위를 나타내려거나 공로의식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서는 “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가 나타내려고 선을 행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렇게 행한 선은 잊으시지 아니하신다. 예수께서도 “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2)고 하셨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ἐπιθυμοῦμεν(에피뒤무멘) “ 갈망하다, 열렬히 바라다” 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간절한 영원을 나타내며 본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αὐτήν(아우텐) “ 동일한” 으로 말함으로 모두 함께, 빠짐없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ἐλπίδος(엘피소스) “ 소망” ἄχρι(아크리) “ ...까지” τέλους(텔루스) “ 목적지, 결국”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믿음의 결국은 끝까지이다. 이 단어는 고전1:8 “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계2:26 “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에 나타난다.

## 환영과 영광



이영재 목사  
주양교회 담임  
원주대신교회 대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거리에 나온 환영인파가 60만 정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함성은 "김일성, 김정일 동지 만세"라는 식의  
구호였다.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한다든가 하는 구호는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참 우습다"라고 생각했다.

환영 나온 인파가 외치는 소리는 자신들의 자화자찬식 구호였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조금 눈치를 챘는지 김일성, 김정일을 더이상 외치지  
않고 그렇다고 김대중 대통령도 외치지 않고 다만 "만세!" 구호만 외쳤다.

<'6.15' 1주년기념 KBS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

우리교회에서는 혹 하나님, 예수님을 모셔놓고  
우리들의 이름만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 주양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오전 11: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찬양, 성경강해

새벽 5:00 / 새벽예배

수요 오후 7:30 / 삼일예배(주제별 성경공부)

금요 오후 9:00 / 심야예배(찬양과 기도집회)





##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6.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 본문 : 요 6:35-51

여러분들 중에는 애완동물이나 난이나 분재, 꽃 같은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이를 주지 않거나 물을 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얼마 안 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39절)고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게을러서 그리고 자주 잊어버려서 애완동물이나 식물을 못 키웁니다. 제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얼마 못 가서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반드시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날에 만일 육체적으로 잠들어(죽어) 있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게 되고 잠들지 않았다면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날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때까지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디베랴에서 떡과 고기를 축사하신 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고 그곳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을 찾아보았으나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좀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지난번 베풀어주신 것처럼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또 한번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26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표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적인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30절)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31절)고 했습니다. 이 질문으로 보아 그들은 계속해서 만나와 같은 떡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32절)의 대답으로 보아 무리들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라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34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35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2003.7.20) 설교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mailto:webmaster@kcm.co.kr)